

투데이 칼럼

정읍 벚꽃축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원 더 활용해야

지역 축제는 그 지역 환경의 이용과 역사성을 담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름 이용한 정읍 벚꽃축제는 외지인들의 천편 주위 잡권 잡식 등의 문제로 중단되었다가 7년 만에 부활되었다.

필자는 얼마 전 칼럼(전주일보 2017. 3. 24. 17쪽)에서 내장산이나 황토현 등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을 시내로 유입하는 유동인구를 늘려 실질적 인구증가의 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거 큰 성황을 이뤘 성공적이었다는 올해 벚꽃축제를 본 느낌을 시민의 입장에서 크게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관광 유동인구 유입 측면을 보면 이번 축제에 참석한 정읍시민과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 유동인구를 합한 수가 8일 동안 2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제 상용한 관광객들이 철따라 주기별로 시내로 유입된다면 정읍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읍천 주위의 우수한 자연환경의 활용 측면을 보면 주말에 차 없는 거리는 민박한 벚꽃을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는 번잡한 도로에서 모처럼 한가로움과 안전의 편의를 느끼게 했다. 또한 매년에 시달리는 벚꽃나무들에게도 잠시나마 안식을 제공했다.

이에 맞춰 자연환경 보호단체의 비점오염원의 이해와 감소를 위한 노력이나 지구온난화로 식목일 행사를 3월 15일로 앞당겨야 한다는 홍보는 환경보호의 교육적 효과를 느끼게 했다.

이러한 환경활동 측면에 더하여 욕심을 내자면 축제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정읍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을 잘 엮어 적극 알렸으면 한다.

정읍시는 정읍천을 수십 년간 많은 돈을 들여 자연형 하천에 가깝

게 가꾸어 왔다. 산업화로 인해 오염된 수질을 오염원의 정비로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친 일련의 정읍천 정비과정을 관광객들에게 교육하여 수질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줘야 한다.

그리하여 생활 속에서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실천하게 해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간으로써 얻는 혜택을 교육하는 생태하천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하다.

또한 관광객들이 시내에서 접근성이 좋은 정읍천 같은 어메니티 자연환경과 아양산 일원에 모여진 역사문화 자원까지 연계하여 시내에서 두세 시간 정도 머물러 구경할 수 있는 알찬 주제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정읍을 알고 홍보하며 나아가 한두 개 정도는 정읍의 토속음식으로 정읍의 맛을 즐길 수 있게 먹거리 거리도 개발할 필



정 상 섭 정읍시초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요가 있다. 끝으로 정읍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역홍보 효과 측면을 보면 지역에서 자생하는 단체들이 직접 참여해 공예체험, 정읍이 갖고 있는 역사성을 갖춘 전통놀이, 지역 농특산물 판매부스를 이용한 지역 홍보와 경제유발 효과를 얻고자 한 시도는 발전된 모습이었다.

정읍시는 사계절 머물다 가는 관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제는 이런 잘 보존되고 가꾸어진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읍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월적 특성을 갖고 있는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에서 주제를 찾아 축제의 차별화를 기하고 정읍의 멋과 맛을 느끼게 해야 축제가 성공할 것이다.

올 축제의 특징은 사람에 중심을 두고 자연환경 보호와 자생단체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의 홍보 및 인근 상권의 보호에 방점을 둔 것 같다.

또한 관광객에 대한 체험과 교육 효과로 지역을 알리고자 노력한 것도 특징으로 보였다.

계량화된 성과분석에 의한 경제유발 효과는 알 수 없지만 지역 축제가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알릴으로써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사설

귀농 귀촌 최적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주관한 '제 3회 전북귀농귀촌박람회'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서울시 양재동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종합전시센터 aT 센터에서 있던 박람회는 도민들이 볼 때 그 의미가 크다. 서울 간의 일정이 그렇고 '전북도'와 만나는 101가지 이야기 내용이 그렇고, 많은 유명 인사를 참석해 개막식 행사를 생중립에 마친 것도 그렇지만 거기 참석했던 도지사가 "귀농 귀촌의 최적지는 전북"이라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정읍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월적 특성을 갖고 있는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에서 주제를 찾아 축제의 차별화를 기하고 정읍의 멋과 맛을 느끼게 해야 축제가 성공할 것이다.

올 축제의 특징은 사람에 중심을 두고 자연환경 보호와 자생단체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의 홍보 및 인근 상권의 보호에 방점을 둔 것 같다.

또한 관광객에 대한 체험과 교육 효과로 지역을 알리고자 노력한 것도 특징으로 보였다.

계량화된 성과분석에 의한 경제유발 효과는 알 수 없지만 지역 축제가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알릴으로써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제 수 년이 됐는데 농가 소득은 아직도 제 자리라는 보도라서 많이 아쉬운 오늘이다.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의 실적과 관련해서 향방을 확실히 해야 한다. 농업이 도정 최우선 과제라고 여러 번 밝혔으므로 우리 지역이 귀농 귀촌의 중심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도내 농가들의 현실을 보면 삼락농정의 실현이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지 않다. 오늘날 농사에 보람을 찾으려는 이가 드물고 농산물이 소비 시장에서 제 값을 받는 경우도 드물고 귀농하려는 젊은이들이 적은 게 사실 아니냐는 물음이다.

전북도는 농민들의 손에 쥐어지는 무엇인가 큰 선물을 준비해야만 한다. 전북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로부터 삼락농정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을 때도 도내 농가들은 그에 공감하지 않았던 거 말이다. 삼락농정의 성공은 도내 농민들이 평가받지 못했던 정부의 높은 이들이 위에서 내려다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다. 삼락농정의 비전이 앞으로는 실감나게 성공해야 하는 이유이다. 전북도는 우리 전북 지역이 귀농 귀촌의 최적지가 되도록 힘차고도 과감한 행보를 보여주기 바란다.

대체산업 플랜B는 노답이라서 안돼

전북도는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집중해야겠다. 분위기가 어제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있다. 군산조선소는 재가동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노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지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낙연 총리에게 군산조선소 문제를 해결하도록 특명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만 해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다. 국무총리가 해법을 마련해 곧 전북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그 래주기를 바랐는데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말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니 귀가 시끄럽다.

전북도는 힘을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의 현안을 챙기겠다고 말한 만큼 용기를 내야 한다. 산업자원부가 느닷없이 뛰어 들어 내놓고 있는 카드는 도민이 바랐던 바가 전혀 아니다. 골중하거나 타협해서는 안된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하여 몸을 던져야 한다. 이 총리가 가지고 있는 방안이 미흡할 경우를 생각해 두고 '있으라고' 주문했는데 그게 기우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본보는 사설에서 '현실을 감안하라는 타협안 카드를 종종받을 수도 있

다고 미리 경고한 바 있다. 전북도는 군산조선소를 살려내겠다고 여러번 천명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체산업 B플랜을 거부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번 기회에 도민들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현대중공업 측이 7월 가동 중단을 증권거래소에 공식했지만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현대중공업 측이 생각을 바꾸도록 만들어 놓아야 한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고 6천 명의 근로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면 지역 사회에 큰 고통이 될 게 뻔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떤 카드를 내밀든 전북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것을 줄기차게 말해야 한다. 수년 전의 일이지만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한 지역은 전국에서 전북이 유일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0%를 기록한 곳도 전북이 유일하다. 그 기록을 망각해서 안된다. 그것을 잊지 않는 마음 바탕 위에서 군산조선소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정상화를 위해서만 1만명의 시민이 길거리에 나섰던 것을 잊지 말라는 당부이다.

독자제언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생활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올 여름은 다른 때보다도 여름철 폭염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불볕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온열질환 대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통 30~50명이던 국내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170명까지 급증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최근 5년간 60명에 이른다고

대부분의 온열질환자가 실외 작업장 또는 논·밭 및 비닐하우스 등 열농 지역에서 발생한다. 더위로 50대 이상 환자가 많기 때문에 농번기철인 요즘 특히나 온열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 혼수상태에 빠질 수가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무더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지만 활동을 제약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않다.

고령자나 어린이, 고혈압 및 심장병 등 만성질환자는 기온이 높을 때 야외 활동은 피해야 한다.

일사병은 태양의 직사광선을 오래 받으면 생기기 때문에 야외 활동시 튜블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탈수 예방을 위해 물이나 이온음료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카페인 많은 음료나 커피, 탄산음료와 술은 오히려 몸 속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예방법을 숙지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두통, 현기증 등 온열질환의 초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즉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반드시 기억하고 습관화하여 올 여름 건강하게 보내기 바란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독자제언

노인학대 10명중 1명, 대책 마련해야

최근 경로사상이 약화되고 바쁜 일상에 따른 가족 간의 정이 사라지면서 가정이라는 소중한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가정폭력 중 노인 학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10명중 1명꼴로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요즘 들어 경제적 착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노인학대의 주요 특징으로 가해자 대부분이 자녀이고, 학대가 벌어지는 장소 또한 가정 내부라는 것이다.

또 피해자는 자기 방어 능력이 미약한 어르신으로 자신이 당한 피해를 숨기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노인학대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

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즉시 학대행위를 중단시키고 현장조사, 상담,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사건처리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상담, 원치 않는 연세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학대 행위를 발견했을 때 즉시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129)에 즉시 신고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인 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백제원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Large graphic with a boat on water and a sun, containing the tex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nd '전주매일' logo.